

발 간 번 호

2022-005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정책
심포지엄 및 시상식**

- 일시: 2022. 11. 18.(금) 14:00~17:00
- 장소: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1층 스마트홀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정책 심포지엄 및 시상식

일시 | 2022. 11. 18.(금) 14:00~17:00

장소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1층 스마트홀

참여 패널 | 본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외 전문가 패널 및 청소년 6명

좌장

이순실 센터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정책분야

황유경 팀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정책연구분야

성윤숙 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연구분야

이지숙 교수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군 현장분야

김성희 센터장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구분야

허난설 교수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청소년분야

오현희 청소년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정책 심포지엄 및 시상식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1부	13:30~14:00 (30')	▪ 발열 체크 및 접수
	14:00~14:10 (10')	▪ 식전행사 [공연] 나우합창단 베이스 김일환(백석대 교수)
	14:10~14:15 (5')	▪ 내빈소개 ▪ 국민의례
	14:15~14:25 (10')	▪ 인사말씀 [환영사] 이순실_충남청소년진흥원장대리 [축사] 홍은아_여성가족정책관
	14:25~14:40 (15')	▪ 시상식 [충청남도지사 표창 11점] 수여자 [충청남도교육감 표창 3점] 수여자 [충청남도의회의회장 표창 2점] 수여자
	14:40~15:00 (20')	▪ 청소년상담복지 사업보고 [영상시청] 바른생활 루틴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우수기관 발표] 우수기관-당진센터, 아산센터
	15:00~15:05 (5')	▪ 휴식시간
2부	15:05~16:35 (90')	▪ 연구결과 발표 및 전문가 토론 [좌장] 이순실_본원 상담복지센터장 [발표] 김성희_본원 상담복지센터 상담연구팀장 [토론] 황유경_충청남도 청소년정책팀장 성윤숙_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이지숙_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희_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난설_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오현희_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16:35~16:50 (15')	▪ 질의 및 응답
	16:50~17:00 (5')	▪ 폐회 및 마무리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정책 심포지엄 및 시상식

CONTENTS

연구결과 발표 및 전문가 토론

- 발표 |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 9
김성희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상담연구팀장
- 토론 |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조사 결과에 따른 청소년정책 방향 ---- 37
황유경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팀장
- 토론 |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토론 ----- 41
성윤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실장
- 토론 | 충남 청소년 위기실태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 47
이지숙 |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청소년 지원 방안 및 상담복지센터의 역할 ----- 53
김성희 |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토론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응 ----- 59
허난설 |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토론 |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의견 ----- 65
오현희 |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 발표 |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김성희 상담연구팀장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Contents

Chapter1 연구배경

Chapter2 연구방법

Chapter3 연구결과

Chapter4 연구결론



Chapter1

연구배경

- 연구 필요성
- 연구 목적

바른생활 루틴이



Chapter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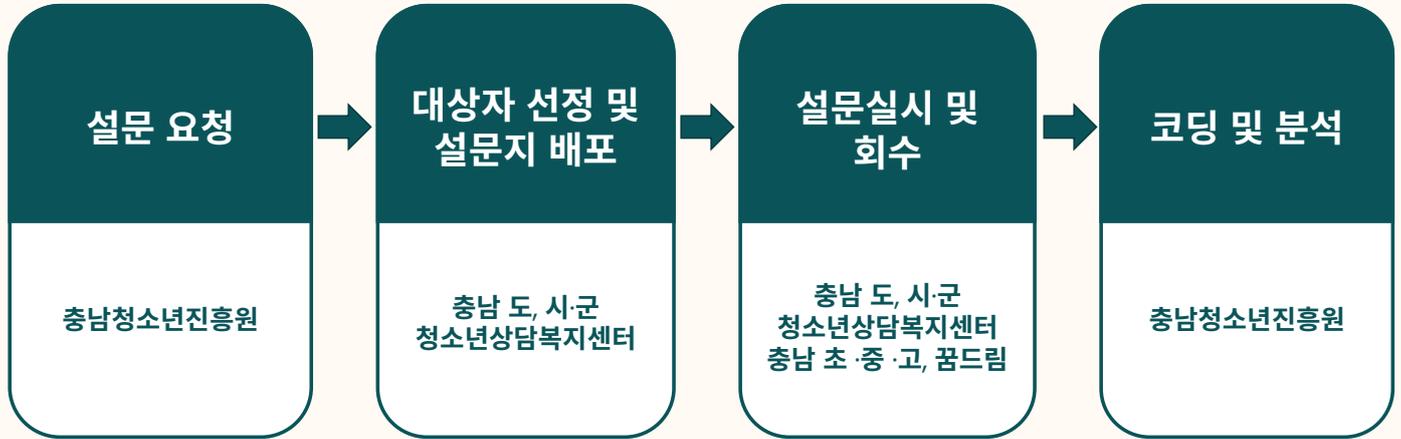
연구방법

-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조사도구

바른생활 루틴이



Chapter 2-1. 조사방법



Chapter 2-2. 조사대상

조사대상	충청남도 15개 시·군 12~19세 청소년 3,199명 <small>*충남 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등</small>
조사기간	2022년 7월 ~ 8월

Chapter 2-3. 조사도구

위기실태조사	보호요인	- 하위요인 : 자기존중감, 책임감 · 목표의식 · 적극적대처 가족의 관심과 신뢰, 친구관계, 교사의 관심과 관계 지역사회 지지체계, 지지자원(19문항)
	위험요인	- 우울 및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내 갈등·방임·폭력·학대 부모간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 비행친구(40문항)
	위기결과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 약물 및 도박 - 폭력피해(학교폭력, 학대) - 자해 및 자살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 가출경험 - 근로실태

척도사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년)

Chapter 2-3. 조사도구

분석방법	- 빈도분석 - 평균차이분석 (t-test, ANOVA, post hoc test) - 회귀분석
------	--

Chapter3

연구결과

바른생활 루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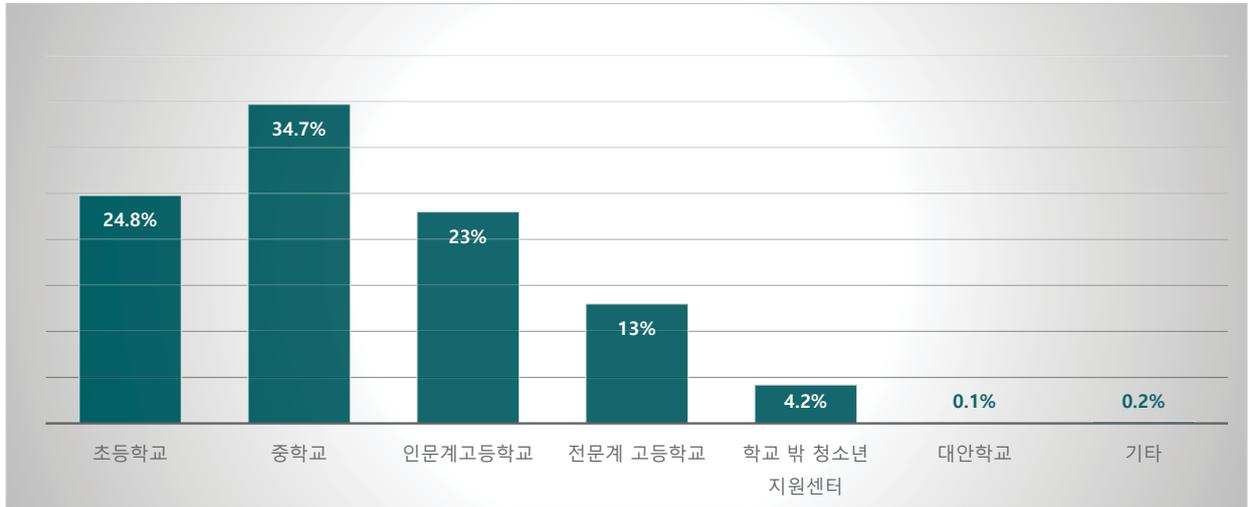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성별 분포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소속 기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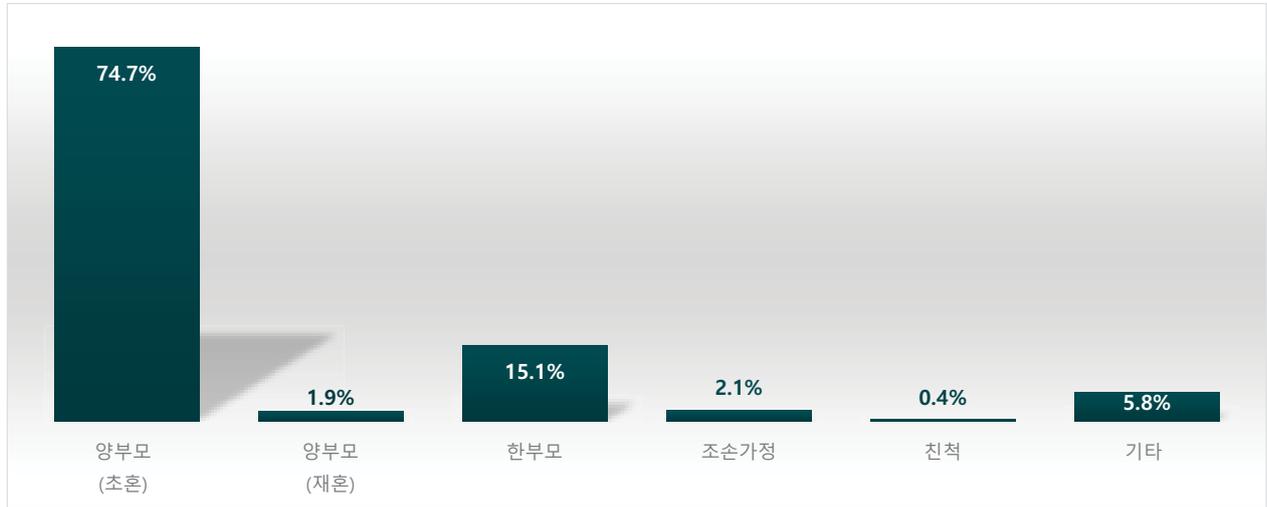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거주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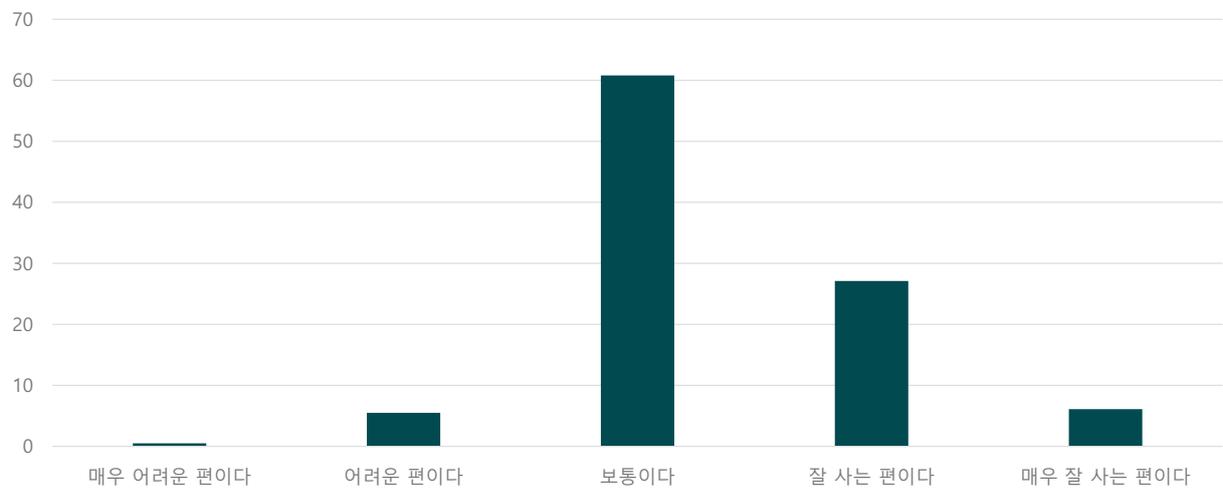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가족 형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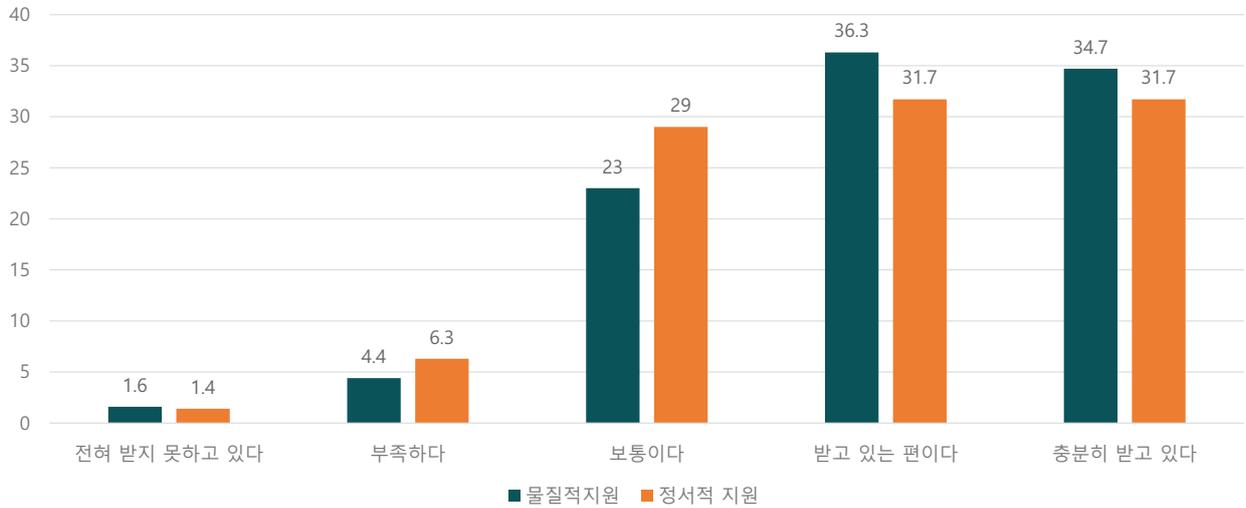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경제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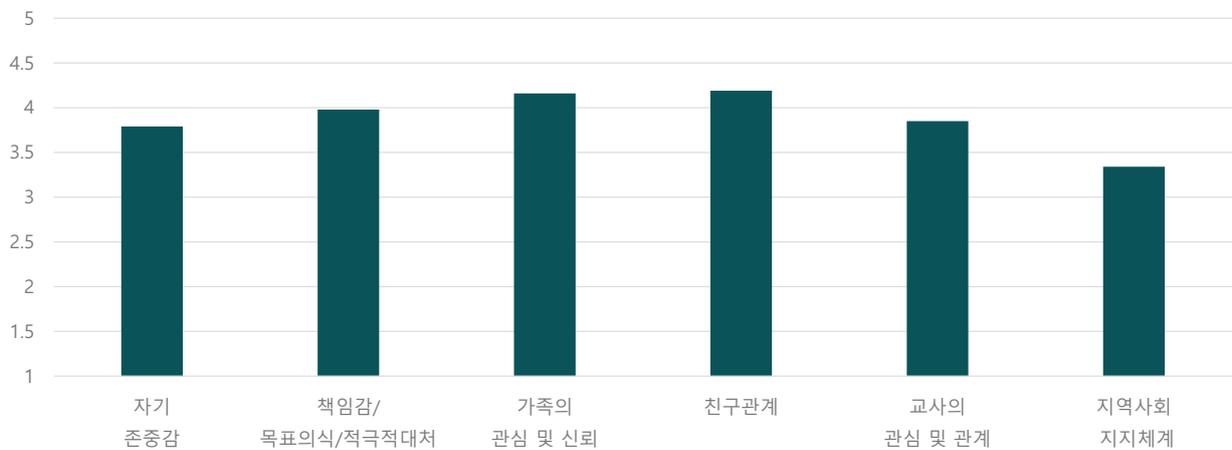
Chapter 3-1. 인구사회학적 정보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수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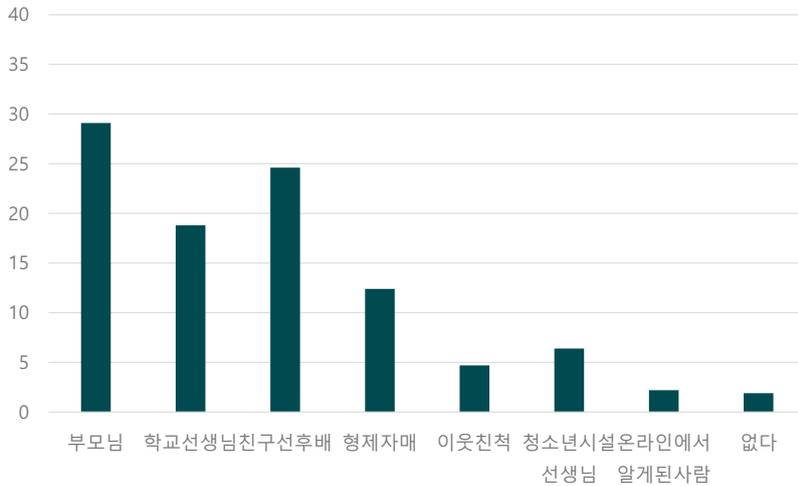
Chapter 3-2. 청소년 보호요인

보호요인 수준



Chapter 3-2. 청소년 보호요인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중복응답)



	응답수	응답%
부모님	2425	29.1
학교선생님	1565	18.8
친구선후배	2047	24.6
형제자매	1030	12.4
이웃친척	394	4.7
청소년시설선생님	534	6.4
온라인에서알게된사람	180	2.2
없다	157	1.9
합계	83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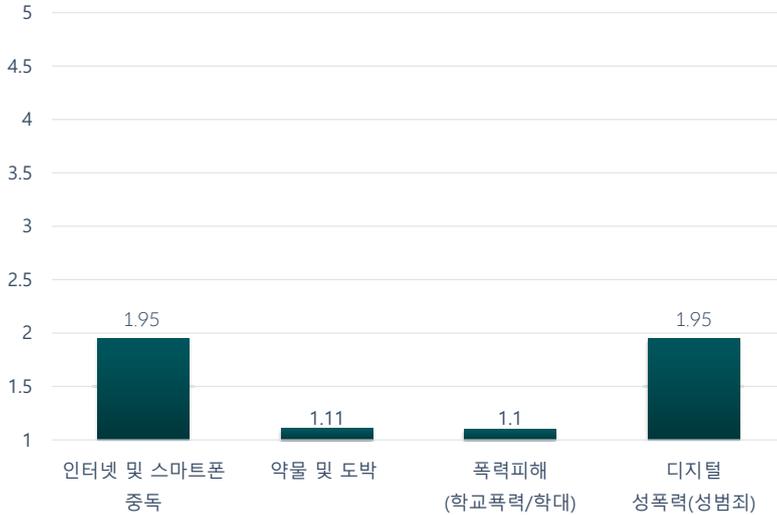
Chapter 3-3. 청소년 위험요인

위험요인 수준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위기결과 수준



	사례수	평균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점수 범위: 1~5점)	3195	1.95
약물 및 도박 (점수 범위: 1~5점)	3195	1.11
폭력피해(학교폭력·학대) (점수 범위: 1~5점)	3189	1.10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점수 범위: 1~2점)	3193	1.95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문항내용		사례 수(n)	%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게임·SNS 등)으로 인해 타인(부모·교사)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전혀 없다	2,439	76.3
	1번 이상	720	22.6
	거의 매일	36	1.1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게임·SNS 등)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1,609	50.4
	1번 이상	1,442	45.1
	거의 매일	144	4.5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SNS 등)을 하루에 3~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738	23.1
	1번 이상	1,448	45.4
	거의 매일	1,009	31.6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게임·SNS 등)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지각·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등)이 있다.	전혀 없다	2,113	66.1
	1번 이상	928	29.1
	거의 매일	154	4.8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안전부절하고 초조해진다.	전혀 없다	2,431	76.1
	1번 이상	660	20.6
	거의 매일	104	3.3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약물 및 도박

문항내용		사례 수(n)	%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전혀없다	2880	902
	1번 이상	295	92
	거의 매일	20	06
지난 한달 동안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피운 적이 있다.	전혀없다	3031	949
	1번 이상	108	34
	거의 매일	56	17
지난 한달 동안 환각성 물질(부탄가스, 본드, 마약류(허브마약 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전혀없다	3125	978
	1번 이상	65	2
	거의 매일	5	02
지난 한달 동안 돈(사이버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카드나 화투, 인형 등) 뽑기, 스포츠경기 내기, 복권/토토 등)을 해본 적이 있다.	전혀없다	3052	955
	1번 이상	134	42
	거의 매일	9	03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폭력피해

문항내용		사례 수(n)	%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3,084	96.5
	1번 이상	111	3.5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적인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2,808	87.9
	1번 이상	385	12.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2,983	93.4
	1번 이상	211	6.6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후배에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전혀 없다	3,127	97.9
	1번 이상	67	2.1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폭력(SNS, 카톡 등에서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전혀 없다	3,076	96.3
	1번 이상	117	3.7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문항내용		사례 수(n)	%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없다	3,048	95.5
	있다	145	4.5
	합계	3,193	100.0
내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 받은 적이 있다.	없다	3,027	94.8
	있다	166	5.2
	합계	3,193	100.0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합성된 것 포함)을 보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3,065	96.0
	있다	128	4.0
	합계	3,193	100.0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스팸 제외)	없다	3,032	95.0
	있다	161	5.0
	합계	3,193	100.0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자해 및 자살위험

문항내용		사례 수(n)	%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자살사고)	전혀 없다	2,509	78.6
	1번 이상	682	21.4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자살계획)	전혀 없다	2,934	91.9
	1번 이상	259	8.1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자살시도)	전혀 없다	3,082	96.6
	1번 이상	109	3.4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자해시도)	전혀 없다	2,837	88.9
	1번 이상	356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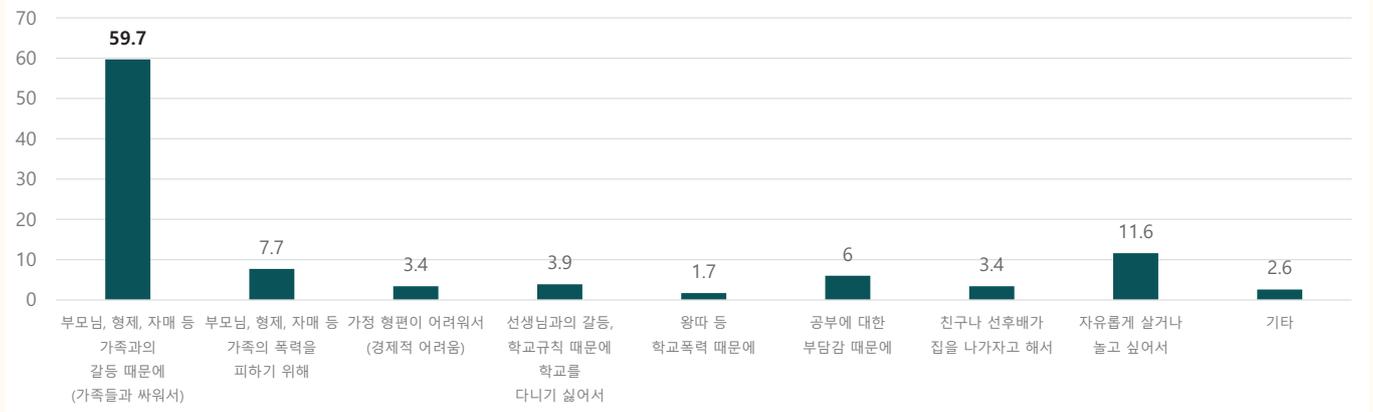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자해이유(경험자 n=340)

	사례수(n)	%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69	20.3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73	21.5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61	17.9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12	3.5
고통스럽더라도 뭔가를 느끼기 위해	11	3.2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90	26.5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	11	3.2
호기심이 들어서	11	3.2
기타	2	0.6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가출

가출경험	사례수(n)	%
가출을 해본적 없다	3009	94.2
가출을 해본적 있다	184	5.8

가출 이유 (중복 응답)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가출

가출 후 거주장소	응답 수	응답%	사례%	가출청소년 필요 서비스	응답 수	응답%	사례%
청소년쉼터나 일시보호소	11	4.90	6.70	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	1,153	20.7	38.3
친구 또는 선·후배집	84	37.30	51.20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	2,168	38.9	71.9
여관/모텔/달방/월세방	17	7.60	10.40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업지원	569	10.2	18.9
찜질방/고시원/PC방	23	10.20	14.00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439	7.9	14.6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61	27.10	37.20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	676	12.1	22.4
친척집	17	7.60	10.40	건강문제를 도와주는 의료지원	543	9.7	18.0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헬퍼)의 집	6	2.70	3.70	기타	29	.5	1.0
가출팜	6	2.70	3.70	합계	5,577	100.0	185.0
합계	225	100.0	137.2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경험 여부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근로 경험시기 및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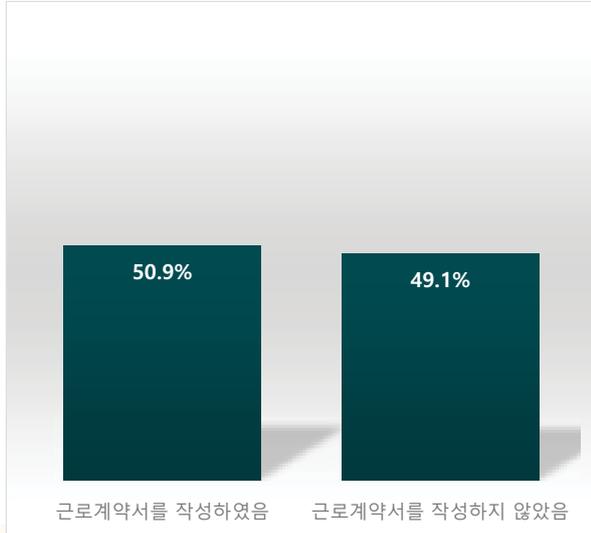
최초 일자리 경험시기	사례 수(n)	%	일자리 지속기간	사례 수(n)	%
초등학교	5	1.5	1개월	68	20.7
중1	19	5.8	3개월 미만	74	22.6
중2	30	9.2	6개월 미만	69	21.0
중3	61	18.7	1년 미만	52	15.9
고1	122	37.3	2년 미만	20	6.1
고2	71	21.7	3년 미만	9	2.7
고3	19	5.8	기타	36	11.0
합계	327	100.0	합계	328	100.0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 근로경험 이유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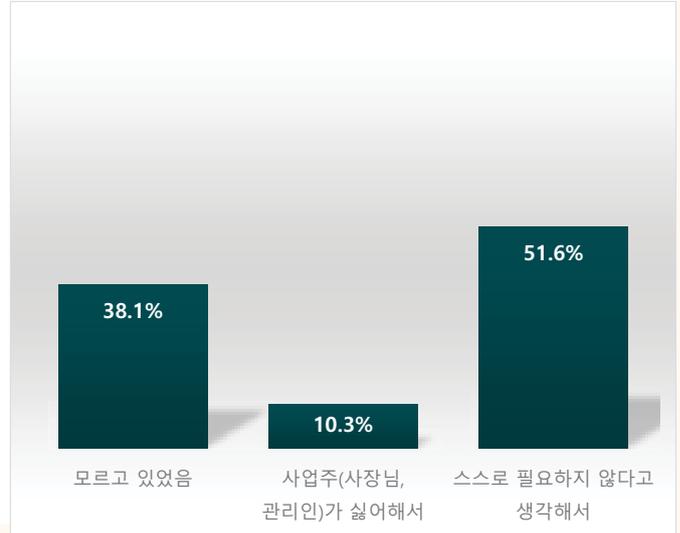
일자리(아르바이트) 경험이유	사례 수(n)	%	주 경험 아르바이트	1순위	
				사례 수(n)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6	5.1	사무보조(컴퓨터등)	14	4.3
용돈을 넉넉히 쓰기 위해	202	63.9	전단지(스티커) 돌리기	31	9.6
가출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	1.3	분식집 및 패스트푸드점	40	12.4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31	9.8	24시 편의점, 마트, 가게	39	12.1
진로선택의 도움을 받기 위해	16	5.1	주유소	4	1.2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12	3.8	식당(서빙, 설거지등)	136	42.1
참고서나 문제집 등 구입 등 학업을 위해	2	.6	커피숍	27	8.4
기타	33	10.4	호프집 관련	1	.3
합계	316	100.0	이벤트 행사(행사도우미, 나레이터 등)	2	.6
			택배	1	.3
			단순노동(건설현장 및 공장 등)	7	2.2
			호객행위(삐끼)	0	0.0
			배달업무(배달대행업체 새벽배송 등)	1	.3
			배달(피자, 치킨, 중국집 등 오토바이 배달)	0	0.0
			기타	14	4.3
			합계	323	100.0

Chapter 3-4. 청소년의 위기결과

지난 1년 동안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경우, 그 이유



Chapter4

연구결론

바른생활 루틴이



Chapter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

위기결과		
성별 차이	우울	여자>남자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남자>여자
	비행친구	
	인터넷및 스마트폰 중독	여자>남자
	약물 및 도박	남자>여자
	폭력피해(학교폭력, 학대)	
	디지털 성폭력	성별차이 없음

위기결과		
성별 차이	자살사고	여자>남자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해시도 평균	
	자해 및 자살위험	

*자해이유

-여자: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서>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남자: 스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Chapter 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 차이 - 소속 기관별

위기결과	
자기존중감	초등학교 5~6학년 >인문계,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학교
책임감·목표의식·적극적대처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수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공격성·충동성·부주의 수준	초등학교 5~6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가정내 갈등·방임·폭력·학대 수준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학교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 > 인문계 고등학교
부모간 갈등 수준	전문계 고등학교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교생활부적응 수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 초등학교 5~6학년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 중학교

위기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중학교, 인문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대안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
약물 및 도박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폭력피해	초등학교 5~6학년 >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 중학교 > 전문계 고등학교
자해 및 자살위험	초등학교 5~6학년 >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Chapter 4. 보호 및 위험요인과 위기결과

문항내용		요인
보호요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자기존중감, 책임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친구관계, 지역사회 지지체계
	약물 및 도박 문제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지역사회 지지체계, 가족의 관심 및 신뢰
	폭력피해	자기 존중감, 가족의 관심 및 신뢰, 친구관계
	디지털 성폭력	자기 존중감
위험요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우울을 제외한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가정 내 갈등. 방임. 폭력. 학대, 부모 간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 사회 유해 환경, 비행친구
	약물 및 도박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가정 내 갈등. 방임. 폭력. 학대, 비행친구
	폭력피해	불안,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부모 간 갈등, 비행친구
	디지털 성폭력	지역사회 유해환경

Chapter 4. 가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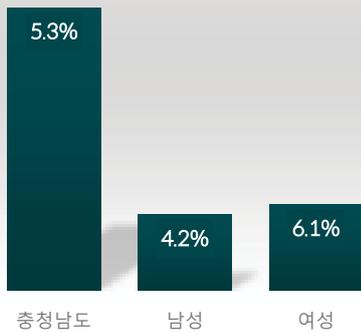
문항내용		
가출이유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76.8%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9.9%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 2가지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	38.9%
	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	20.7%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	12.1%
	기타 의견 : 심리상담, 고민상담, 정신건강치료 등	상담복지센터

Chapter 4.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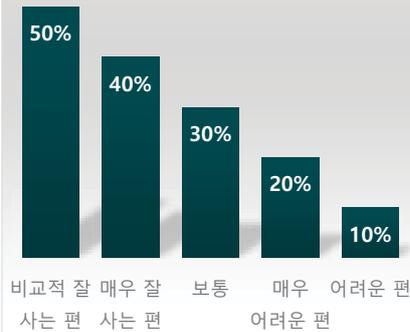
문항내용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를 다닌 이유	용돈을 넉넉히 쓰기 위해서	63.9%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9.8%
충남 도내 14세 이상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아르바이트 종류	식당(서빙, 설거지 등)	
충남 도내 청소년 근로 시작시점	고등학교 1학년 시기	37.3%
	고등학교 2학년 시기	21.7%
	중학교 3학년 시기	18.7%

Chapter 4.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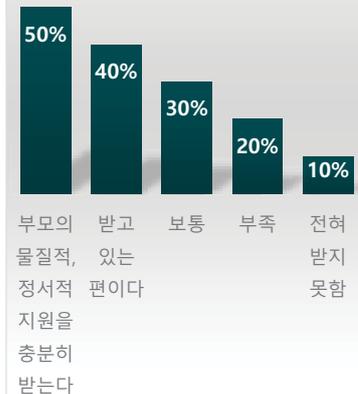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상사나 동료 또는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



경제수준에 따라 근로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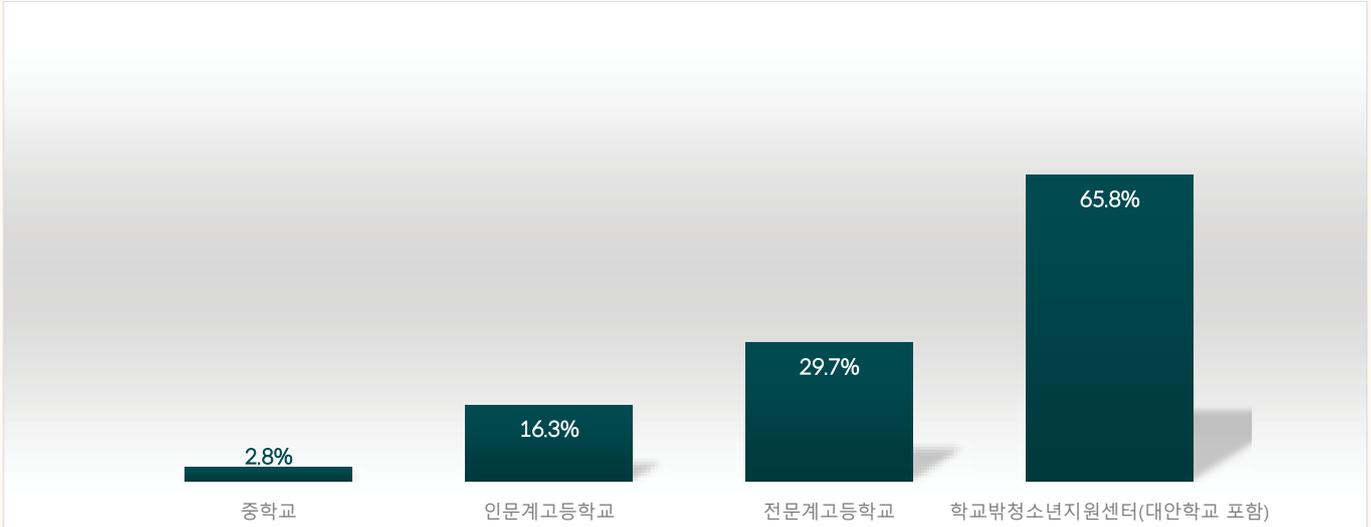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 수준에 따라 근로 경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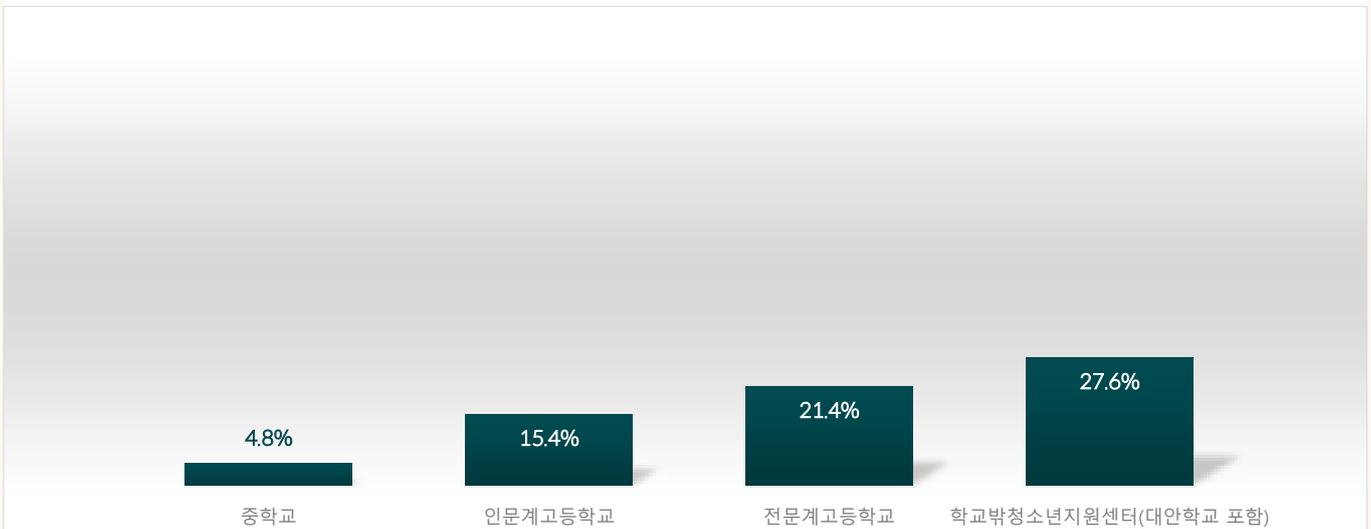
Chapter 4.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실태

소속기관별 14세 이상 청소년 근로 경험



Chapter 4.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실태

지난 1년간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적 갈등 여부



Chapter 4-2. 제언

가.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적 복지 참여 방안 마련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 정도



- 청소년의 우울, 불안
- 공격성·충동성·부주의·가정 내 갈등·방임· 폭력·학대
- 부모 간 갈등
- 학교생활 부적응
- 지역사회 유해환경
- 비행친구

본원에서 실시한 2018년 충청남도 위기실태조사, 2019년 충청남도 중기청소년(17세~19세) 자해 및 자살실태 조사, 2020년 충청남도 청소년 비행태도에 관한 연구, 2021년 충청남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

Chapter 4-2. 제언

가.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개입 유도를 위한 정책적 복지 참여 방안 마련

2019년부터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향상 집단 상담을 강화

1. 부모교육과 집단상담, 부모-자녀 집단상담 등 형태를 다양화
2. 양육스트레스, 관계향상 등 교육의 주제를 변경하여 운영
3. 평일 낮, 저녁, 토요일 오전 등 교육 운영 시간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참여도를 촉진

- 부모교육이 필요한 비행, 학교폭력 피해, 정서행동검사 위험군, 자해·자살 위험군 등 고위기청소년 부모
- 청소년 자녀에게 지지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부족한 부모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안이나 복지지원 정책 개발이 필요

Chapter 4-2. 제언

나. 코로나 이후 증가한 청소년 자살·자해 특화 프로그램 운영

1.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감이 지속 -> 사회전반에 우울감 및 위험요소 증가
2.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전체 자살 사망자 수 청소년(9세~24세) 자살률



심리적 어려움이 가장 큰 자살 동기의 원인

늘어나는 심리적 고립으로 인한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특화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확대 배치 등 자살·자해 집중 상담개입을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

Chapter 4-2.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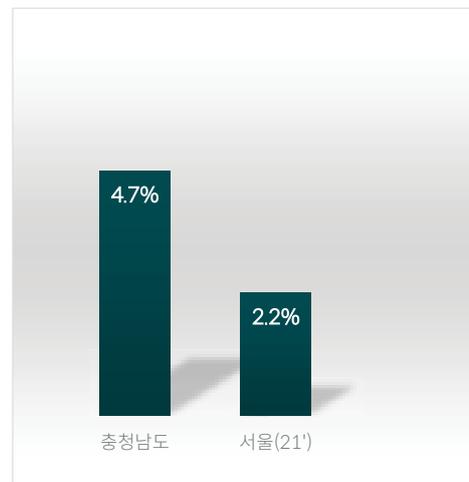
다. 온라인 환경 및 소셜 미디어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학습공간이 온라인에서의 심리적 교류로 방향 전환

➡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에서 온라인과 디지털 영역의 비중 증가

➡ 온라인 성범죄는 익명 계정 사용을 통해 무분별하게 아동·청소년에게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장기적인 예방과 보호 정책의 수립이 필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범죄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 법안 강화 및 정책적 제도 기반 마련 必



Chapter 4-2. 제언

라.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소 확대

청소년 가출의 위험성

1. 숙식해결을 위하여 경험하는 근로현장의 인권침해상황
2. 생활비용 등 마련을 위한 유흥업소
3. 폭력, 절도 등 각종 비행 등

➡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가출 사유 64%

가정에서의 보살핌 부족,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생존형 가출

- 이들의 상황에 맞는 일시보호소의 홍보강화 및 다양한 선택적 서비스가 요구됨.
-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복지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함.
- * 일시보호소, 드롭인, 쉼터(단기, 중장기), 자립지원관, 그룹 홈 등 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 강화

Chapter 4-2. 제언

마. 위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조사 대상의 성별 자해 및 자살위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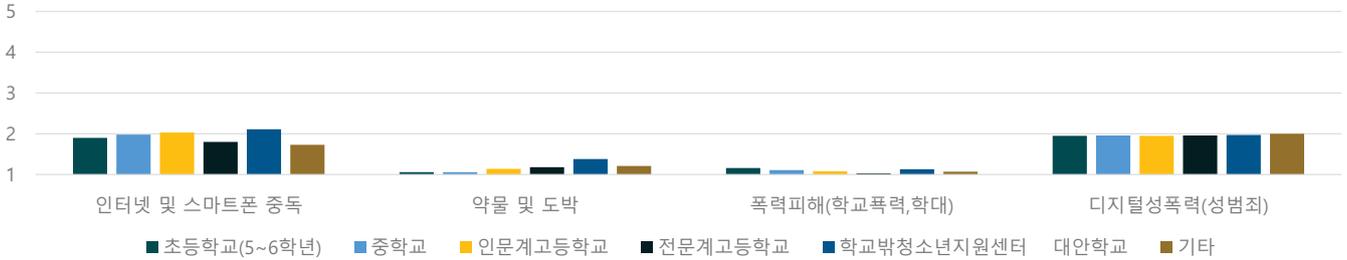
2021년 충남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Chapter 4-2. 제언

마. 위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조사 대상 청소년의 소속 기관별 위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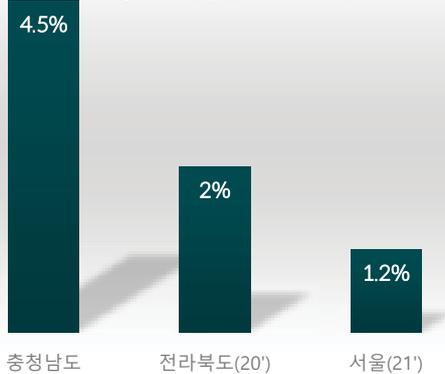
성장 발달과정과 교육편성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 차이는 특성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성별, 소속기관 및 연령 등 위기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Chapter 4-2. 제언

바. 도박 및 약물중독의 저연령화 추세 대응방안 모색

지난 한달 동안 돈(사이버머니)을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카드나 화투,인형 등) 뽑기, 스포츠경기 내기, 복권/토토 등)을 해 본 적이 있다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교실, 학원, 문화 공간 등 청소년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등교거부·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문제가 드러날 때는 이미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전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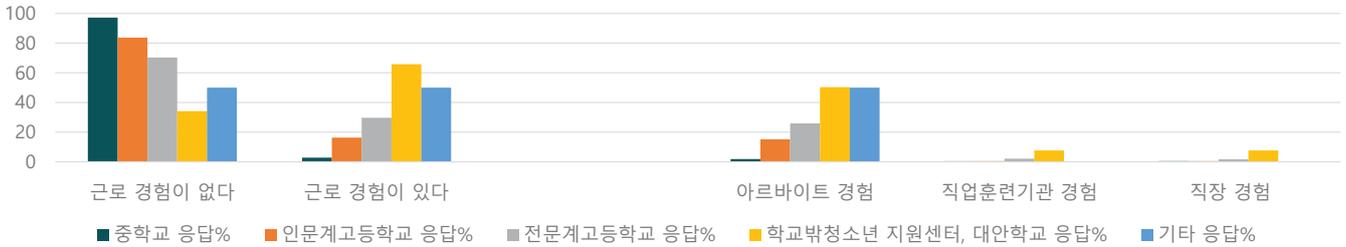
전문 중독 개입 기관
→ 인터넷 중독에 국한되어 있음

청소년 중독 문제를 종합적·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개설과 포괄적인 예방 교육 개발이 필요

Chapter 4-2. 제언

사. 청소년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강화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경험 여부 : 소속기관별 차이



근로경험이 있는 전문계고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등 관련 규정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Chapter 4-2. 제언

사. 청소년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 현장의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교육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인권교육 경험자는 50%에 미치지 못함

- 최초 직장(아르바이트 포함) 경험 전 중학교 3학년 하반기부터 근로 인식교육 등의 근로 사전교육
- 다수의 청소년이 최초 근로경험 하는 고등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노동법 교육을 비롯한 노동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등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
- 효율적인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Chapter 4-2. 제언

사. 청소년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교육 강화

청소년 노동 현장의 부당대우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교육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노동인권교육 경험자는 50%에 미치지 못함

- 노동인권 교육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인턴 등 다양한 근로 형태와 일반고, 특성화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교육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함.

바른생활 루틴이

감사합니다.

| 토론 |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조사 결과에 따른
청소년정책 방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황유경 팀장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황 유 경

충청남도 청소년정책팀장

I. 들어가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비교하여 충남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약물 및 도박 경험, 폭력 피해 및 디지털 성폭력 경험 역시 높았음. 자살·자해 시도 청소년은 조금 낮은 수치이나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고 가출 경험은 두 배에 달했으며 부모의 지원이 없는 청소년의 근로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II.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정책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 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 청소년진흥원을 통해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2명)
- 나.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 천안지역 중심 전수조사 및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사후조치 강화(1명)

2. 약물 및 도박중독 예방

- 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지원(20개 단체)
- 나. 청소년범죄(마약·도박중독) 예방·대응 분과협의회 운영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주관,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여 마약·도박중독예방 활동 전개(예정)

3. 폭력 피해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 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충남지방경찰청 내 전문상담원 파견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처(9명)
- 나. 학교폭력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폭력 전담인력을 배치 지원(16명)
- 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고정형·이동형) 운영
 -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3개소)

라. 청소년화상상담실 구축

-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상담실 구축(예정)

4. 자살·자해 예방

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위기청소년의 현장을 찾아가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지지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

나. 1388 청소년 전화 운영

- 365일 24시간 운영, 위기청소년(부모)이 직접 전문상담사와 상담 실시, 모바일 상담(카카오톡, 페이스북, 문자) 가능

5. 가출청소년 보호

가. 청소년쉼터 운영

- 고정형 쉼터를 통한 청소년 보호·지원(9개소)
- 고정형 쉼터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광역쉼터 운영(예정)

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 쉼터 이용 후 자립 생활능력과 사회진출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1개소)

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최대 1,080만원)

6. 근로청소년 보호

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해결 및 근로권익 보호 인식 제고(1개소)

나. 충남 노동권익센터 연계 강화

- 노동법률(상담·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등 연계(예정)

III. 마치며

충남도는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 연계를 통해 학업 중단, 가출, 각종 중독 등 위기(가능)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현재 위기청소년 대상사업이 분절·파편화 되어있음을 인지하고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특히 내년도에는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하고 기존사업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충청남도 위기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

| 토론 |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성운숙 실장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토론

성운숙 실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본 실태조사는 충남 청소년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조사를 보며 느낀 점과 토론했으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 내용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을 보면, 조사 대상 중 다문화 가정(외국인, 탈북민, 중국교포) 사례 수가 200(한 분만 외국인 170), 한부모 가정(483)과 조손가정(66) 사례를 합쳐 549인 사실은 비율과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한부모·조손 가정의 청소년 관련 위기 상황 발굴 및 세부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호요인은 보통이상이고, 위험요인, 위기결과는 보통이하 수준’에 대한 통계 결과는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위기 결과 통계는 보통 이하라 하더라도 실재하는 현실이고, 중독, 폭력, 우울, 자살충동 등 해당 경험군의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기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및 맞춤형 지원정책의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에서 충남 청소년이 자살사고나 자살 시도를 제외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음주, 흡연, 온라인게임, 폭력피해 경험, 디지털 성폭력, 가출경험, 자살 계획 및 자해 관련 통계는 전반적으로 서울보다 부정적 결과라는 점은 분명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굳이 서울과의 비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왜 충남 청소년들이 서울 청소년들보다 전반적으로 위기수준이 높은지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사의 다양한 제언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제언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현재까지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조사에서 드러나듯, 고위험군 부모 교육의 참여자 만족도는 높아도, 실제 고위험군 부모의 참여율은 저조하고, 또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95%) 압도적이라는 사실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예방이라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확산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례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켜 줄 프로그램’, ‘아버지를 위한 맞춤형 성공전략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효과적 노후준비’ 그 외 30대, 40대 등 세대별 남성이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과정 안에 부모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결혼예비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고, 그 안에 부모교육을 녹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9세~24세) 자살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특화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 청소년동반자 확대 배치 등’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자살 관련 정책 역시 부모교육처럼 예방지향적이므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청소년의 상대적 소외감과 단절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해줄 프로그램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폭력은 본질적으로 인성이 중심적 문제로 보입니다. 행위 이전에 반드시 생각이 있고, 인간의 관계적 사유 대부분은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 전체에 90종의 어울림 프로그램 6대 역량과 52종의 사이버 어울림 8대 역량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성윤숙 외, 2022). 사회정서 역량교육과 함께, 디지털사회에 적합한 인성교육 및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나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 및 지원체계 마련은 중요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열거하신 실효성 있는 일시보호소, 쉼터(단기, 중장기), 드롭인 쉼터 등은 위기 상황 극복의 소극적 측면의 지원이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들에 대해,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을 포함하여, 국가가 검정고시 등 교육과 진로선택, 그리고 실질적 삶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복지,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각각 컨트롤 타워가 되어 책임 있는 생애 주기적 지원설계를 하여 안정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성별, 소속기관별, 위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집단이나 그룹별로 적용할 경우, 개별 청소년 각각의 위기 특성이 간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별이나 소속기관별 차이가 보편적이지 않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대부분의 위기요소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경제적 위기, 가정 위기, 학교폭력 위기, 중독 위기 등을 동시에 여럿 지니는 경우가 있고, 이는 성별이나 소속기관의 차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K.G. 용이 ‘개인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향성, 외향성, 남성, 여성, MBTI결과 등 인간을 집단별로 규정할 경우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나 문제를 놓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위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와 위기상황을 예측하는 빅데이터체계구축 함께 정부 및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체계의 시작은 위기 청소년 하나하나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그 개인이 지닌 위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발굴해야 할 것이고,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단지 돕는다는’ 수동적, 소극적 마인드가 아니라, 잠재적 미래인재로서 국가 성장 동력의 양성이라는 적극적, 능동적 패러다임으로 접근한다면, 생산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박 및 약물중독의 저연령화, 그리고 중독 문제의 실질적 전문 치료기관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유일한 그것도 인터넷 중독에 국한되어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전문적, 청소년 중독 문제 해소 기관과 포괄적 예방 교육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에 더불어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기술적 접근, 제도적 규제, 인성 교육 등)과 관련하여, 그 각각의 방어막을 어떻게 조율하고 유기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청회가 열리기를 희망해봅니다. 일례로 섯다운제가 자율적으로 전환되었는데, 애초에 섯다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자율규제의 무용성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라면, 그 효과성 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고 자율과 규제의 합리적 비율의 도출 후, 어떤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또 섯다운제가 폐지되고 현재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게임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이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의 부족, 실효성 등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인식 수준의 상승과 근로현장에서의 현실이 지니는 일련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즉 청소년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은 분명 필요하고, 따라서 노동인권교육 역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하반기부터 근로 사전교육을 하고 고 1부터는 노동법, 노동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등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자는 제안은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여주듯, 14세 이상 청소년의 근로 경험이, 전문계고등학교 29.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포함) 65.8%에 비해 중학교 2.8%, 인문계고등학교는 16.3% 정도라면, 시급한 것은 전문계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일차적으로 법제도적 안정이 필요한 듯 하고, 근로 사전교육이나 노동인권교육 같은 의식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실현과 삶의 가치 발견, 관계적 차원의 의사소통, 관계의 이해, 사회적 차원의 도덕과 법 준수,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나의 행복과 애국의 상관관계,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 나와 자연의 공존과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과 한용운, 유관순과 윤봉길의 후손인 충청남도의 청소년들을 위한 열정에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 감사드리고, 잠재적 미래인재인 청소년들이 실제적 인재가 되는데 기여할 것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 토론 |

**충남 청소년
위기실태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숙 교수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숙 교수

최근 청소년지원 정부 주무부처에 대한 예고된 변화나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변화 등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한 상황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 속에서 충청남도 청소년의 현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충남 청소년진흥원의 위기 실태조사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지난 6개월여간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위해 여러 번의 회의와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을 위해 고생한 충남청소년진흥원 담당자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고생하셨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충남 15개 시·군의 자체조사결과와 함께 비교 분석되어 증거에 기반한 정책 및 서비스 제안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남도 청소년의 현재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연도별 또는 지역별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 청소년의 변화상황을 파악하거나 해당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연구가 보강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비교그룹에 대한 기술이 없어 제시된 충남청소년의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충남 청소년의 변화과정이나 상대적 비교상황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를 차년도 실태조사연구에 재조사하여 연차별 비교를 가능하게 하거나, 타지역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또는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연구를 계획하여 이들의 변화사항이나 그 과정을 확인해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패널조사와 같은 종단연구나 연차별 비교연구결과는 충남청소년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거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증거기반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본 보고서에 제시된 지역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재검증이 요구된다. 거주지별 청소년 위험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 내 갈등·방임·폭력·학대, 부모 간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에서는 충남 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사회유해환

경의 경우 지역별 비교분석에서 당진시와 예산군이 청양군보다 높은 평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친구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예산군이 천안시와 청양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약물 및 도박 응답율의 경우에서도 예산군의 평균이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지역 시·군과 협업하여 청소년위험요인에 대한 지역별 청소년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성이나 욕구에 기반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다양한 외적·내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과의 연계는 활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시설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추론을 하자면 대다수의 충남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관련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거나 관련시설 선생님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우선 시설 수가 충분하지 않고, 청소년관련 시설들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은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관건은 내재화 또는 외현화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전문가의 직접적 개입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의 이러한 지원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확대 또는 다양한 가시성(visibility)확대 방안마련 등의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분석 및 추가연구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충남청소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분화된 연구결과제시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의 경우 ‘집을 나와서 지냈던 장소’에 대한 질문에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이 ‘친구 또는 선·후배집’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이는 안전과도 직결되는 위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는 횡수와 무관하게 청소년들의 음주경험 9.8%, 흡연경험 5.2%,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이 2.2%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실제 행위자보다 적은 수가 응답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용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며 이러한 약물은 심각한 마약(hard drugs)으로 가는 관문으로 그

위험도가 낮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이나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실태 및 추가지원 대안 제시를 위한 세분화된 연구가 추후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세분화된 영역의 현황과 지원 상황을 주기적으로 실태 파악하는 것이 청소년의 현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에 제시한 기관의 역할이나 활동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3,194명의 대규모 충남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충남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등에 대한 현재를 보여주는 주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연구나 비교연구와 같은 객관적 비교군을 확보하는 것과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시·군에서 청소년의 관련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추가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 결과는 충청남도의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남청소년진흥원의 활동이 증거에 기반한 전문적 지원활동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토론 |

청소년 지원 방안 및 상담복지센터의 역할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희 센터장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지원 방안 및 상담복지센터의 역할

김 성 희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 대안은 미숙한 편이다. 또 이전보다 확대된 역할과 선택으로 청소년들은 불안하고 긴장, 갈등, 혼란을 경험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주변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미래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는 청소년 위기 관련,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그리고 ‘위기 결과’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충남 청소년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그 경향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먼저, 조사대상 청소년의 보호 요인 및 위험요인, 위기 결과 수준을 살펴보면, 보호 요인(자기존중감 평균 3.79, 책임감·목표의식·적극적 대처 평균 3.98, 가족의 관심 및 신뢰 평균 4.16, 친구 관계 평균 4.19, 교사의 관심 및 관계 평균 3.85, 지역사회 지지체계 평균 3.34)은 보통 이상 수준과 비교적 높은 수준에, 위험요인(우울 평균 1.84, 불안 평균 2.20, 공격성·충동성·부주의 평균 1.94, 가정 내 갈등·방임·폭력·학대 평균 1.31, 부모 간 갈등 평균 1.38, 학교 생활 부적응 평균 1.67점, 지역사회 유해환경 평균 1.54 ‘비행 친구’ 응답 범위 1~2점 기준 평균 1.07)은 ‘비행 친구’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 수준, 그리고 위기 결과(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평균 1.95, 약물 및 도박 평균 1.11, 폭력 피해 평균 1.10,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1~2점 기준 평균 1.95) 또한, ‘디지털 성폭력’을 제외하고 심각도에서 대체로 보통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성과는 별개로 충남 청소년들의 위기 경험 관련 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소속기관별(초·중·고·대안학교·학교밖지원센터 등), 가족 형태별, 경제 수준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과 물질적 지원 수준별로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 위기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필요와 취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호 및 위험요인과 위기 결과 간 관계 즉, 위기 결과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보호 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각 기관(초·중·고·대안학교·학교밖지원센터 등)별, 또는 학년별 특정프로그램 지원 강화

위기 결과 수준에 소속 기관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중학교 청소년이, 약물 및 도박 수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학교 청소년 집단이, 폭력피해(학교폭력·학대) 수준은 초등학교 5~6학년 집단, 그리고 자해 및 자살위험 수준도 초등학교 5~6학년 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개발하여 시기별 주기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 케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 유형별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충남지역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 약물 및 도박 문제, 언어폭력, 디지털 성폭력 문제, 자살과 비자발성 자해 문제, 가출 문제 등이 대체로 타 시·도의 실태조사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위기 유형에 따라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별 부모교육 강화.

가족 형태별 위험요인 수준을 보면, 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부모 간 갈등 수준은 양부모(재혼)집단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평균이 높았고, 위험요인 중 가정 내 갈등·방임·폭력·학대와 학교생활 부적응은 양부모(재혼), 한부모 가정 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에 대해서는 양부모(재혼) 가정 청소년 11.5%, 한부모 가정 청소년 9.5%, 조손가정 청소년 12.1%로 나타나 각 가족 형태에 보다 초점화된 부모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요인(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부주의, 가정 내 갈등·방임·폭력·학대, 부모 간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유해환경, 비행 친구)과 위기 결과(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약물 및 도박, 자살 시도와 자해 시도, 자해 및 자살위험, 가출경험) 모두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평균 또한 점자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청소년에게 가정이라는 1차 안전망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부모로서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가족 형태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성 관련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강화
충남지역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성범죄)경험 관련, ‘신체 일부 도둑 촬영’, ‘신체 사진이나 영상 요구’, ‘유포하겠다는 협박’, 그리고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5% 내외로 평균 4.7%로 나타났다. 이는 타 시·도의 디지털 성폭력 경험(2021년 서울시 2.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공간이 더 활성화되고, 이러한 가운데 성 콘텐츠 접촉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아동·청소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기적인 예방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저학년부터 성 인식에 대한 감수성, 성 태도의 변화, 성역할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시설 지원
충남지역 청소년의 5.8%가 가출 경험이 있고, 가출 후 지낸 곳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37.3%),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27.1%), 찜질방·고시원·PC방(10.2%) 순으로 나타났으나 쉼터나 일시보호소를 이용한 청소년은 4.9%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지낼 곳이 필요하면서도, 쉼터나 일시보호소 이용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심리적·물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접근이 용이한 드롭인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호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의 욕구와 상황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분화, 전문화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더 큰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응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허난설 교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응 - 사안별 논의 및 기관별 서비스 구분 필요성에 관하여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허난설

충남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상담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원고에서는 2022 충청남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나타나는 청소년 심리사회적 위기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공적 주체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합니다.

1.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나타난 위기 사안별 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 코로나로 인한 영상물과 인터넷 사용 증가는 기존의 인터넷 과사용 문제의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볼 필요가 있음.
- 실내생활과 영상물 시청의 절대 시간 증가는 수면량과 수면 사이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수면 문제는 우울, 짜증, 분노 조절, 집중력 문제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코로나 전후 청소년의 수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 당시에는 수면량은 오히려 늘고, 수면에 드는 시간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으나, 포스트 코로나에는 점차 수면량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약물 및 도박 경험>

- 사회적 동기 기반 도박 및 물질 중독이 강박적 동기를 가지는 심각한 의존 상태가 되기 전에 제도 안에서 중간 수준의 서비스, 즉, 기숙시설이나 입원 시설 이전에 약물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재활 및 중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 각 공적 기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방적 노력은 상당 부분 논의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재활이나 보호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

<디지털 성폭력 경험>

- 사이버 공간이 인간관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사이버상의 중독 및 성관련 범죄 노출 빈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디지털 성관련 범죄 사안 처리 및 법적 사안에 대한 청소년상담자와 청소년 지도자 대상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범죄 피해로 인한 대인 외상, 공포와 불안, 사회적응상의 위기 심리를 청소년상담자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가출>

- 청소년 가출의 상당 부분은 심각한 가족 위기이므로 청소년 쉼터에 가족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거나 연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청소년 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불안하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정신건강 문제>

- 코로나 이전부터 비자살적 자해와 자살 위기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여기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 압박 증가, 경제 침체로 인한 취업과 생존 경쟁에의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됨. 고위기 사례가 아니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일상 유지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여유감 감소, 평가적 요소에 수반된 자존감 위협 등을 경험하고 있음.

2.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대응의 공적 주체와 제공 서비스

-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응은 어떠한 프로그램 단위를 신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나, 어떤 공적 기관이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delivery)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임.
- 현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위기 대응은 공적 주체에 따라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각 공적 기관이 어떻게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음. 또한 각 기관이 각자의 체계내에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 점차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음. 각 기관이 서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대중에게 서비스 구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나가야 함

-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적어도 40분 이상 회기 지속, 5회기 이상의 지속성, 회기를 통한 상담목표 설정과 추구가 있는 경우 등을 심리 상담서비스라고 표현하나, 10분 내외의 정보 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심리 상담서비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가들이 서비스 중복을 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서비스의 초점은 표1과 같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표 1. 심리건강 관련 공적 기관들의 주요 서비스

공공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프로젝트(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주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하거나 연계되어온 내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 집단상담 제공 •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영역(진단과 약물치료, 입원)과의 연계 •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응력 증진을 위한 복약지도, 보호자 교육, 재활 프로그램 실행등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중심으로 한 내담자 모니터링과 학생들에 대한 개인상담 • 집단상담 제공 •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문자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관점 기반 내담자의 인지정서행동의 패턴과 의미구성 평가 (사례개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관점 기반 환자의 적응기능 및 정신건강 평가(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교육적 관점 기반 학생의 학교적응과 발달적 위기 평가(사례개념화)
개입방향의 기본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직접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정신과 및 외부 상담 기관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과 발달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과 심리교육 직접 서비스
서비스의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4세 대상 고위기 청소년 심리상담이 주요 서비스 • 그 밖에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복지 서비스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연령 성인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연계(병원비 및 약제비 지원)를 주요 서비스로 함. • 일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사업적 성격의 직접서비스 확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에서 19세 학생 대상 • 위클래스는 담당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 문제 해결과 예방적 상담에 집중. • 위스쿨의 경우, 기숙시설로 장기적으로 학생을 보호, 치료, 교육함.
심리상담이나 치료 관련 연계처(사회복지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 연계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는 외부로 연계하지 않음 •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병원비 지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연계처는 정신과(진단과 약물치료) • 소아청소년이 심리상담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일부 센터에서는 사업성의 직접서비스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클래스와 위센터 수준에서 고위기 사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하는 경향 • 위스쿨의 경우, 지역사회 기관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많아 추가 연계처가 많지 않음.

| 토론 |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의견**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오현희 청소년

충남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의견

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오현희

1. 고위험군 청소년 부모 개입 유도를 위한 정책적 복지 참여 방안 마련.
-필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ex: 연 3회 필수 교육 운영[4회기])
청소년 자녀에게 지지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관심이 부족한 부모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토큰경제를 활용하여 참여유도를 높이는 방안. 사전 부모-자녀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물색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의 접수를 받고 선별과정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연 단위 프로그램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한 사람에게는 토큰(지역화폐) 형식의 보상을 제공하여 자녀에게 지지나, 관심이 부족한 부모들에게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2. 코로나 이후 증가한 청소년 자살·자해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치료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한 청소년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고 가는 경우가 있다. 사전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고위기 청소년의 경우 사후 프로그램 운영 또한 중요한 부분이하고 생각한다. 감정의 폭이 넓은 청소년의 경우 사전에 여러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후 지속적인 연락, 혹은 상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또다시 부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후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온라인 환경 및 소셜 미디어 일상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안전장치를 개발 한다.(청소년 안전장치(부모와 연결, 상담사와 연결 등))
대부분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방지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 제도를 통해 최대한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호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범죄를 예방, 소셜미디어에 실시간 신고기능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안에서 범죄에 노출이 될 것 같을 때 신고기능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여 조취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을 것 같다.

-가해자 처벌 강화.

예방교육 만큼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다. 성과 관련된 범죄인만큼 범죄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신상공개, 범죄자 주변 집들에 우편알림 등의 서비스가 현재도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죄가 무거운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문이나, 지역뉴스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좋을 것 같다.

-소셜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 교육

무분별하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에 걸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범죄에 노출 되었을 경우 대처 법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단기, 중장기)쉼터, 일시보호소 및 드롭인 시설 확대.

-시설 확대 역시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확대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2차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가정으로 복귀 시키려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청소년들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출을 한 만큼 무작정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보단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또는 청소년의 동의를 구한 후 청소년의 상태가 안정이 되었을 때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언제든 다시 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 마련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온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심신안정을 위해 쉼터 등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정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 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5. 위기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위기 특성에 맞게 청소년 분류 후 프로그램 실시.

사전 청소년들의 상담, 심리검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청소년을 묶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간 서로 교류를 통해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6. 도박 및 약물중독의 저연령화 추세 대응방안 모색

-중독 사태에 심각성에 대해 교육.

중독 사태에 심각을 깨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험을 통해 직접 피부로 느끼며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MEMO

MEMO

MEMO